

원희룡 장관 “건설현장 정상화, 진정한 약자 보호에 함께 노력”

- 8일 오전 건설현장 불법·부당행위 사례발표 현장 참석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8일(수)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·부당행위 사례발표(주관: 대한전문건설협회, 철근·콘크리트사용자연합회) 현장에 참석하여 전문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신고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이날 행사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철근·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회원사 관계자 등 총 500명이 참석하였으며,
 - ○○건설 대표 등 5명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·부당행위 피해 실태를 발표하였다.
- 원희룡 장관은 “그동안 현장이 불법을 넘어서는 무법지대가 되고 열심히 일하려는 건전한 근로자들이 떠나는 등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”한다며, “정부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건설현장의 진정한 약자, 진정한 노동을 보호하고 특히 특정 건설기계 면허를 독점하고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- 아울러 원 장관은 “건설현장에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폐이퍼컴퍼니, 별떼 입찰,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노력도 필요”하다며,
 - 앞으로 “정부도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테니, 함께 손을 잡고 현장을 고쳐 나가자”고 당부하였다.

2023. 3. 8.

국토교통부 대변인